

새로 나온 책

## 고전의 지혜와 현재의 상상력이 만나다

‘인공지능도 사랑할 수 있을까’, ‘아이 언만의 자본주의와 블랙 팬서의 국가주의는 어떻게 다를까’, ‘로봇은 인간을 지배하려고 할까’,

책은 미래의 기술 문명이 낳을 수 있는 여러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인문학적 성찰을 제시한다. 미래 인문학은 고전의 지혜와 현재의 상상력을 결합한 지식 체계다. 저자는 학계의 연구 결과와 검증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간다.

기술의 발달로 인해 미래에는 인간의 본모습이 바뀌게 될지도 모른다. 인공지능이 병에 걸린 사람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쓰이는 것을 넘어 인간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 이러한 미래는 이미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육상선수 오스카 피스토리우스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 때 의족을 착용하고 달리기 경주에 참여하려 했지만, 국제육상경기연맹으로부터 ‘출전 불가’ 판정을 받게 된다. 탄소 섬유 의족인 그의 다리가 다른 선수들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 공정



미래 인문학

윤석만 지음/울유문화사

한 경기가 이뤄질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신체의 기능을 확장하는 기술이 발전하면 인간은 사이보그처럼 진화할 수 있다. 미래에는 ‘신체 디자이너’ 같은 직업이 만들어질 지도 모른다. 어디까지를 인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능력을 높이기 위한 이유만으로 몸을 마음대로 개조하는 일이 윤리적으로 옳은 일인지 등을 생각해 봐야 한다. 문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미래 지향적인 안목을 기르고 싶다면 일독을 권한다.

320쪽. 1만5000원. /김현정 기자 hik1@

지폐의 세계사

세저칭지음/김경숙 옮김/마음서재



지폐를 보면 그 나라를 알 수 있다. 지폐의 도안은 시대와 역사를 나타내는 동시에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지폐에는 국민들이 숭상하는 위인이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물이 등장한다. 국가의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하며, 나라의 전통과 이념을 담고 있기도 하다. 때로는 통치자의 권력 강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지폐는 한 국가의 정체성을 단순히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도구라고 저자는 말한다.

328쪽. 1만6000원.

법률 천재가 된 흥대리

김향훈·최영빈 지음/다산북스



부동산 세법을 알아야 절세를 하고, 노동법을 알아야 부당한 갑질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물며 가장 안락해야 할 집에서 중간소음과 흡연 문제로 참을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기도 하고 이웃집 개에 물리면 어디서 보상받아야 할지 몰라 당혹스럽기만 하다. 일상은 사건, 사고의 연속이다. 임대차계약부터 부당해고까지 일상 속 문제를 해결하는 법률 상식을 총망라한 생활법률서.

280쪽. 1만5000원.

나이 공부

토마스 무어 지음/노상미 옮김/소소의책



우리는 나이를 의식하는 순간이 오면 우울해지고 의욕이 떨어진다. 움츠러들고 외로워진다. 왜 그럴까. 진정으로 나이 드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저명한 심리치료사인 저자는 몸이라는 물리적 요소가 기능을 잃기 시작하면 인간의 또 다른 구성요소인 영혼은 충만해진다고 말한다. 심리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나이 들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짚으며 희망적인 노년의 비전을 제시한다. 404쪽. 1만7000원. /김현정 기자



시와 사진이 있는 아침

자록련

언제나 꽃밭 되시어  
어두운 마음속 밝혀 주시던...

/고흥곤 작

# 달라진 호텔 1인 패키지 ‘혼캉스족’ 위한 콘텐츠는?

나홀로 호캉스를 즐기는, 일명 ‘혼캉스족’이 증가하면서 휴식과 엔터테인먼트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호텔 패키지가 주목 받고 있다. 1인 고객 전용 패키지를 내놓는 호텔도 늘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노보텔 엠베서더 서울 동대문 호텔&레지던스(이하 노보텔 엠베서더 동대문)는 최근 기가라이브 TV를 접목한 ‘나홀로 희희낙락’ 패키지를 선보였다.

이 패키지는 1인 고객을 위한 맞춤형 패키지다. ▲슈퍼리어 객실 1박 ▲조식 1인 ▲이그제큐티브 라운지 1인 무료 이용 혜택 ▲기가라이브 TV(GIGA Live TV) 무료 대어 혜택 ▲레이트 체크아웃 오후 2시 ▲피트니스 및 수영장 무료 이용 혜택으로 구성됐다. 기가라이브 TV를 대여하면 객실 내에서 2D 영화 15편, 3D 영화 7편 등 총 22편을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이그제큐티브 라운지에서 애프터눈 티타임과 해피아워 서비스, 주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자유롭게 홀로 먹고 즐길 수 있다.

노보텔 엠베서더 동대문 관계자는 “최근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많은 호텔들이 1인 전용 패키지를 선보이고 있다”며 “노보텔 엠베서더 동대문은 여기서 더 나아가 가상과 현실을 넘나들며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VR 서비스를 도입해 패키지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부산롯데호텔은 이달 말까지 1인 전용 패키지 ‘온리 포 미’ 2종을 선보인다. 지난해 선보여 높은 예약률을 기록했던 만큼, 올해는 더욱 특별한 혜택으로 구성했다.

비즈니스와 호캉스로 나뉘는 패키지에는 공통적으로 ▲디럭스룸 1박 ▲룸 서비스 조식 1인이 제공된다. 비즈니스 패키지에는 파카 만년필 1개가 제공되며, 요청시 만년필 각인



레스케이프 ‘읽어봄’ 패키지./레스케이프

- 노보텔 엠베서더 동대문 기가라이브 TV접목한 패키지
- 부산롯데호텔 조식 1인에 파카 만년필 제공
- 신세계 조선호텔 이달의 책 1권·미니바 맥주까지
- 부산 웨스틴조선호텔 아로마 스프링 패키지로 힐링
- 글래드 포텔 8시 이후 늦은 체크인 서비스

를 통해 150여 종의 독서를 투숙기간 동안 볼 수 있다.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의 ‘컬러풀 아로마 스프링’ 패키지는 힐링과 재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구성으로 눈길을 끈다.

오는 5월까지 진행되는 이 패키지의 디럭스 객실 타입에는 코스메틱 브랜드 러쉬의 로켓사이언스 입욕제가 제공된다. 이그제큐티브 객실 타입을 이용하면 알록달록한 스티커 아트로 힐링할 수 있는 ‘하비 박스 콜라주 염서’가 제공된다. 스위트 객실 타입은 해운대 바다를 내려다보며 특별한 티타임을 이용할 수 있는 파노라마 라운지 애프터눈 티 세트가 제공된다.

아근에 지친 직장인들을 ‘혼캉스’로 이끄는 패키지도 있다. 글래드호텔의 ‘오늘은 가지마’ 패키지는 오후 8시에 늦은 체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지난 1월 글래드 라이브 강남에서 첫 선을 보인 뒤 반응이 좋아, 직장인과 비즈니스맨이 밀집한 글래드 여의도에서도 선보이게 됐다.

글래드 호텔엔리조트 마케팅 관계자는 “이제는 얼리버드가 아닌 레이트버드”라며 “최근 주요 소비자로 떠오르는 밀레니얼 세대들의 관심 유도 및 혼족들이 온전히 나를 위한 휴식을 자신에게 선물할 수 있도록 워트 있는 네이밍을 더해 ‘오늘은 가지마’ 패키지를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seoul.co.kr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호캉스 패키지는 호텔 43층에 위치한 중식당 ‘도림’의 1인 정식 메뉴가 서비스 된다.

1인 전용 패키지가 아니라, 즐길거리가 다양한 엔터테인먼트형 패키지도 주목 받는다.

신세계조선호텔의레스케이프는오는 5월까지 책을 읽으면서 맥주를 즐기는 ‘읽어봄’ 패키지를 운영한다. 이달의 책 1권과 객실 내 미니바 맥주(4종)이 제공돼 ‘북맥’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포함됐다. 우선, 패키지 투숙객에게는 교보문고에서 도서, 음반 등 구매가 가능한 드림카드 1만원권이 증정된다. 또한, 매달 이달의 책 작가와의 만남 행사가 별도로 진행되며, 스위트룸 고객은 호텔 내 라이브러리의 북 큐레이션 서비스



노보텔 엠베서더 서울 동대문에서 기가라이브TV를 체험하는 고객. 노보텔 엠베서더 서울 동대문

글래드 여의도의 크리에이티브 라운지. /글래드호텔